

대구지역 불자 교장 교감들

아름다운 서원

‘불교교육지도자모임’ 결성... 인성교육 뒷받침 3월초 창립법회, 파라미타 활성화 큰 힘 기대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불자 교장 교감들이 가정 ‘불교교육지도자모임’을 결성한다. 김용태 조계종립 능인중학교 교장 등 대구지역 불자 교장 16명은 1월 6일 모임을 갖고 모임 결성을 결의했다. 이 모임에 참여할 뜻을 확인한 지역 불자 교장 교감은 40명이며 시교육청 건부 7명도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자교장들은 이 모임을 통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지식 교육의 전형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전개할 방침이다. 모임의 구성원이 교육현장을 이끄는 지도자들인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 모임의 초대회장으로 내정된 능인중학교 김용태 교장은 “종립학교 교장으로서 청소년 포교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해 전부터 교장 교감 모임을 준비해 왔다”며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틀을 제시하는 보다 장기적인 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3월 초순경에 창립법회를 가질 계획이다. 모임 결성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회원을 늘려 나가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가시화 공단, 7월부터 4개 공원 폐지 의견 밝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불교계의 요구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7월부터 일부 국립공원의 입장료폐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월 10일 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7월부터 태안해안, 다도해, 한려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내용이 조계종으로 정식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료 관련 정책이 사실상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국립공원 입장료폐지와 맞물려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1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지관 스님을 예방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입장료를 받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도 12월 16일 지관 스님을 방문, “공단도 입장료 폐지에 찬성”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해당 사찰들과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종단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김순태 할아버지

本寺 국장회의 허와 실 4면

군병원 포교환경 8면



파라미타 지도자 연수 9면

신행다이아리 작성법 19면

중국 차시장 이용법 26면

불회속의 명장면 28면



공정수사로 '진상규명'을

‘황교수 사태’ 견해 양극화 우려 높아 종단협 ‘진상규명위’ 설치 움직임

서울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희)가 황우석 교수팀의 2004·2005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원천기술은 없다”고 최종결론을 내렸지만 ‘황우석 지키기’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불교계에도 황 교수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기술까지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어, 황 교수 지지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에서는 교구본사주지연합회 명의의 성명서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검찰 측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서울대조사발표는 기대보다 절망에 안겨줬지만 그의 과학적 능력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마녀사냥식의 조사보다는 연구팀들이 좀더 과학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교총도 11일 총무회의에서 황우석 교수를 감싸 안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교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위원장 지관·이하 종단협)도 16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황우석 교수 사태를 다룬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협 차원에서 검정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이처럼 황 교수를 여전히 지지하는 것은 서울대조사위 구성 및 조사결과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위에 즐기세포전문가가 없다는 점, 황 교수팀의 기술 보유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 한 점 등으로 미루어 ‘황 교수 죽이기’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황 교수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논문 데이터 조작은 시인하면서도,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갖고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설립 승인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설립을 승인했다. 부산지원 원장에는 이영숙 코모도 호텔 대표(前 전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를 선임했다. 부산지원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이숙자 한국유니세프 부산지회장, 선양복지원 김수현 이사장, 박태규 사회복지법인 흥의 대표이사 등 33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해외통신원 모집

현대불교가 2006년 지면개편에 따라 국제면을 신설하고 세계 곳곳의 불교소식을 전할 해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원은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면서 거주 국가의 불교 소식을 전하게 되며, 기획 취재 시 원료료 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위 분들께 대한 추천도 좋습니다. 특히 불교국가에서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격 : 불교신도라면 누구나 가능(출가자 포함)
 ◇지역 :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 비롯한 세계 각국
 ◇연락처 : 전화(82-2-2004-8240)
 팩스(82-2-737-0698)
 ◇이메일 : mwihan22@hanmail.net
 ivanovich29@hanmail.net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일시: 2006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법당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I 인도불교성지순례 (룸비니, 니르바나, 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게로 2월 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 20만원 동참금 205만원

- 제1일 델리도착
- 제2일 델리, 럭나우,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해트)
- 제3일 룸비니 | 마야테미 사원 | 구릉못 | 아쇼카 석주순례
-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라 흙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르나
-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빈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코 수도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II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 아소산, 벳부, 지옥은천)

4박5일 2월 16일-20일 **동참금 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내선)·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인) 가이드및기사팀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항발
-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공: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 제3일 사루마와시 원승이쇼 | 아소화산 | 쿠사세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은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공 관광 | 시모노세키항
- 제5일 KTX 84 | 서울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